

## Dr. Robert Vannoy , Kings, 강의 5

© 2012, Dr. Robert Vannoy , Dr. Perry Phillips, Ted Hildebrandt

### Kings and Chronicles 비교 대조, 공관 문제

#### F. Kings and Chronicles

##### 1. 역대기의 목적과 신학적 관점의 차이

좋아요 "F" "Kings and Chronicles"로 갑시다. "E"는 " 신명론적 역사 신학"이었습니다. "F"는 "왕과 연대기"입니다. "1"은 "목적과 신학적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Kings는 기본적으로 회고적입니다. 즉, 망명자들에게 그들의 상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되돌아본다. 이러한 강조는 다윗 계약의 성취로 다윗 가문의 회복과 관련하여 희망의 전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원에 대한 미래 지향적 아이디어는 배경에 많이 있으며 책의 주요 목적이나 강조점은 아닙니다.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은 포로들이 그들의 땅에서 재건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고레스의 조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회고적이지 않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역대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견고한 기초 위에 재건 과정을 시작할 기초를 제공할 것들을 강조합니다. Archer는 그의 *서문* 389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Archer는

또한 389쪽에서 “역대기 기자의 목적은 히브리 민족의 진정한 영광이 성전에서 규정된 예배 형식으로 보호되고 신성하게 성임된 제사장 직분에 의해 관리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발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성하게 조직된 다윗 왕조의 보호. 따라서 저자는 특별히 유다,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가계, 왕들, 제사장 사독에 관심을 갖는다. 주요 관심사는 다윗과 그의 후계자들의 왕권입니다. 이것은 역대상 1-9장에 나오는 족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맨 처음 부터 분명합니다. 1장은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를 추적합니다. 그런 다음 즉시 추적되는 첫 번째 지파는 유대이며, 2:1 에서 4:23까지 102절에서 모든 지파 중 가장 많은 공간이 주어집니다. 유다 지파 내에서 다윗의 집이 강조되며 3장 전체는 그의 세대를 추적합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르우벤, 10절; 갓, 5절; 동쪽 므낫세, 2 절; 잇사갈, 5; 단, 1 1; 납달리, 2절; 서쪽 므낫세, 6; 에브라임, 10; 그리고 아셀, 11.

북쪽 왕들은 남쪽 왕국의 발전과 관련해서만 언급됩니다.

북왕국의 몰락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역대기에서 충격적입니다. 다윗 자신의 통치는 역대상 10-29장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진다. 다윗의 치세는 약 20장입니다. 그러나이 모든 자료에는 가족 문제와 다윗의 큰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2-20장에서만

발견됩니다. 그 대신 그의 군사적 우위와 특히 예루살렘과 성전과 관련된 종교적 관심사를 강조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언약을 갱신하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올바른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고 시도했을 때 이것은 분명 큰 관심과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참된 신정 왕의 *탁월한* 모범으로 제시되며 (대상 17:14, 25, 29, 23), 그는 아모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오실 다윗의 더 큰 아들의 모형으로 보여집니다. , 예레미야, 에스겔.

Chronicler의 역사에서 명백해지는 또 다른 강조점은 “응보 신학”이라고 불리는 용어입니다. 죄는 심판과 순종을 가져오고, 의는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개념은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망명 이후 커뮤니티에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강조의 의도는 모세 율법의 의식적 요구 사항에 대해 주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도록 격려하고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주제를 강조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내산 언약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서 주된 초점은 시내산 언약에 있지만 다윗의 약속을 배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대기에서 강조점이 다윗 언약에 있는 반면, 이것은 모세 언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열왕기의 모세 언약이나 시나이 언약, 역대기의 다윗 언약에 대한 강조가 있지만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 순서에는 서로 다른 강조점이 있지만 약속된 언약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며 율법 언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그들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시는 목적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시나이 언약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재의 이행입니다. 즉, 심판을 가져오고 심지어 사람들을 포로로 보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관계가 버려지거나 파괴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진정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를 떠나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므로 저주가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시나이 언약의 제재의 이행이며 그 제재의 이행입니다. 다양한 구약 언약의 신학에서 상충되는 조건을 찾으려는 이러한 책들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책의 메시지와 구약 언약의 통일성을 왜곡합니다. 두 책 모두 약속과 율법의 강조점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것의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왕과 연대기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명기 역사와 von Rad가 이러한 계약 사이에 이러한 긴장을 설정하는 개념

사이의 문제를 다룹니다. 시나이 언약과 다윗 언약을 긴장 상태로 볼 수는 없지만 함께 작용합니다.

특별히 선하지 않은 일부 왕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배우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것의 다른 쪽도 종종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그 심판이 올 것이지만 연기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반적으로 당신도 그 일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2. 열왕기와 역대기 간의 공관 문제      Alright, “2” “공관 문제.”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평행 기록으로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행 구절의 목록은 영의 *구약 개론*, p. 395, 또는 Crockett의 *Harmony of Kings, Chronicles, and Samuel* 에서 참고 문헌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종종 역대기 기자의 구절에는 열왕기에는 없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사한 자료에 대한 역대기의 배열은 종종 다릅니다. 다른 경우에 두 텍스트 사이의 일치는 거의 단어 하나 하나입니다.

역대기가 진정한 역사적 기록이자 구약 정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때, 이는 그 구절들이 모순되기보다는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분기점이나 심지어 갈등이 발생할 때 한편으로는 단순한 조화를 구성 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왕이나 역대기의 역사적 신뢰성을 훼손하는 접근 방식에 빠지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고려한 해석을 모색해야 합니다. 반면에, 모든 데이터를 고려할 때 열왕기나 역대기 또는 둘 다의 텍스트 전송 시 손상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역대기의 숫자와 열왕기의 숫자가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Young의 소개 에 있는 토론을 참조하십시오 . 두 책의 숫자 차이는 가장 눈에 띄는 불일치 지점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텍스트 손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해석가들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 기술의 신뢰성에 대해 매우 낮은 견해를 채택하게 만든 다른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주장된 불일치 또는 불일치가 발생하는 위치를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Hailey의 *성경에서 주장된 불일치 와* 같은 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열왕기상 9:11과 역대상 8:2 사이의 충돌 그러나 그러한 예를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HM Kuitert는 자신의 저서 *Do You Understanding What You Read* 에서 14-15페이지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이 성경이 묘사한 대로 일어났다고 최소한 가정해야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에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연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일어났지만, 들은 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11절 이하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20개의 성읍을 히람 왕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도시들은 갈릴리의 북부 도시들이었으며 솔로몬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역대상 8:2에서 우리는 대신에 히람이 이 성읍들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열왕기 상 9장 11절 본문을 봅시다 . 그러나 히람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기 위해 두로 에서 떠났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니다. ‘내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이 도시들은 어떤 도시입니까?’ 그는 물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가불이라고 불렀습니니다 . [NIV 주석이 말하듯이, “아무것도 쓸모없는”에 대한 히브리어처럼 들립니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역대하 8:2과 비교합니니다. 이제 Kuitert가 계속하는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 그는 “이 그림들”[그는 다른 여러 그림을 주었지만 왕과 연대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입니니다]라고 말했습니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니다. 열왕기의 저자와

역대기의 저자 중 어느 저자가 실제 일어난 일을 말합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역사적 정확성에 대해 우려한다면 두 작가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처럼 정확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기록자들이 일어난 일을 정확히 보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텍스트로 무엇을 할까요? *NIV Study Bible* 의 열왕기상 9:11에 내가 쓴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지불을 규정한 그들의 원래 합의(5:9에 대한 주를 보라)에서 예상되었다. 그것은 5:6에 있고 나무는 5:10-11에 있습니다. 11절과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무와 노동 외에 히람에게서 금도 많이 얻었음이 분명합니다.” 11절에 히람이 그에게 백향목과 소나무와 금을 공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8:1-2은 나중에 솔로몬의 금 매장량이 증가했을 때-아마도 오빌의 착취가 돌아오거나 스바 여왕이 방문했을 때-그가 히람에게 진 빚을 갚고 20개 금을 되찾았다고 지적합니다. 마을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는 그가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한때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주었지만 나중에 갚을 수 있게 되자 성읍들을 되찾았습니다. 텍스트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할 때 합리적인 가정입니다. 나는 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대기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이 금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은 히람이 어떻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는지 열왕기상 9장 14절입니다. 내가 보기에 는 도시들이 금에 대한 담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정입니다. 요점은 모순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두 진술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두 책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노력해야 하는 종류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정보나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것은 구약성서의 신뢰성에 대한 견해가 이런 종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신뢰성 에 달려 있다고 암시하는 방어적인 태도 없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접근해야 하는 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점을 고수하기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정보가 없으면 문제로 남겨둡니다. 해결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둡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역대기 기자가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상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이 아니라 합당한 방식으로 이상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대기는 밋세바 사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으로 얼마나 멀리 가는지 조심하십시오. 나는 Chronicler의 변화하는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냥 빠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Chronicler는 그 도시가 아주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반면 Kings는 그가 그에게 이 쓸모없는 도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복음서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 관점에서, 누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동등하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지 않고 단순한 조화를 제공하는 것보다 몇 가지 어려움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단순한 조화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 *ICBI 업데이트* 라는 뉴스레터가 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무오성에 대한 국제

고문이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운영되었고 성경적 무오성의 원인을 홍보하기 위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들의 뉴스레터는 *Update* 라고 불렸고 , 그 뉴스레터에서 Norman Geisler는 Kenneth Kantzer가 친구의 죽음에 대해 목격자로부터 두 건의 보고를 받은 이야기를 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구약 역사에서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 그녀는 길모퉁이에 서 있었고 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하지는 않았으며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 그녀는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차에 치여 그녀는 차에서 튕겨져 즉사했습니다. 가이슬러는 두 보고서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백히 모순적이지만 완전히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설명이 있지만 어느 것도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Kantzer는 우리가 목격자를 신뢰하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기본 원칙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길모퉁이에 서 있었고 버스에 치였으며 부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량한 사마리아인 운전자에게 태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차에 치여 그녀는 차에서 튕겨져 즉사했습니다. 두 보고서 모두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배경을 모르면 서로 모순적이라고 할 것이다. 교훈은 목격자들이 충돌할 때에도 목격자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문제의 역사성을 부인함      우리 는 평생 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문제를 조화시키기에는 2천년 이상 너무 늦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손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명백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해석을 제안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증거 없이 피상적인 의사소통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의 신빙성을 위태롭게 하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특정 어려움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후자의 유혹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성경 부분과 신뢰할 수 없는 부분 사이에 자의적인 구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일단 그 길을 시작하면 분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을 긋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주장은 "미끄러운 경사면" 주장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진실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것은 타당한 접근법이 아니며, 그 최종 결과는 불가피한 진실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그 방향을 택할 경우 확실히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세부 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나아갑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시작하여 점점 더 빛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그들의 교수들보다 이것에서 훨씬 더 나아가고, 3세대에 이르면 그들은 성경의 역사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한 포기합니다.

Dischronologization

에 Dillard의 기사 레이 딜라드(Ray Dillard)가 그의 기사 "An Example of the Chronicler's Theological Method", *복음주의 신학 학회지*, 23권. 그것을 읽으셨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면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한 예시이고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어보십시오. Ray가 그의 기사에서 정당한 질문을 제기했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쉽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그가 성경 역사의 저자들이 신학적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사실적 오류를 활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렇게 많은 단어로 나와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질문으로 암시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기사를 읽는 것에서 멀어집니다. 적어도 그것이 제가 기사를 읽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게르하르트 폰 라트와 역사 비평 방법을 사용하는 많은 다른 학자들이 극단적으로 취한 방법론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호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비연대화"와 명백하고 잘못된 연대 기적 오류 사이의 구별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기사를 읽으면 이 비연대화 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때때로 당신은 경전에서 연대순으로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종류의 논리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탈연대화가 연대순이 아니라 애매모호하다면 문제가 없다. 작가는 요점을 만들기 위해 음악 순서를 벗어나 자료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왜곡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연대기화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료를 재정렬하고 이것이 여기에서 발생했고 저것이 다음에 발생했으며 그 순서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때 다른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면 사실 오류가 발생합니다. Dillard의 기사는 Chronicler가 그런 종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illard의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이러한 공관적 문제가 있고  
사무엘서에도 유사점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구약성경에도 공관 문제가 있고, 복음서에 대한  
공관 문제는 긴 토론거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나요?  
일부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열어 두어야 하며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유인물의 끝입니다.

McConville의 신명기 역사의 2단계 분석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오늘 밤에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어주길 바라는 McConville의 기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McConville은 신명기 역사 의 이중 또는 이중 편집이  
있음을 시사하는 왕의 구성에 대한 현재 이론과 상호 작용합니다 .  
최초의 신명기 역사는 요시야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는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었지만 그것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입니다. 신명기 역사의 두 번째 판은 포로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편집자는 당신이 발견한 부정적인  
강조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것은 이중

편집입니다.

McConville은 작가가 한 명인 것 같다고 말하며 처음부터 왕권에 결함이 있고 결국 망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바로 그것을 얻습니다. 나는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개혁조차도--히스기야의 개혁과 요시야의 개혁을 생각할 때-그 개혁조차도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전반에 걸쳐 정말 떠오르는 질문은 어떤 왕이 정말로 어떤 종류의 영구적인 구원이나 축복이나 구출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죄 문제와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 수 없는 타고난 무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필연적으로 포로로 인도할 어떤 것을 세우셨고 그것이 열왕기의 저자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거기에 목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특히 예언서에서 발견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배경 또는 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예언자들은 이 기간 동안 글을 쓰고 있었고 여러분은 그들이 묘사한 왕국의 하향 나선에서 이것을 봅니다. 예언자들은 미래에 다윗의 왕좌에 앉을 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상을 성취하고 정의와 평화의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처녀의 후손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는 “임마누엘” 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열왕기 자체의 내용으로 들어갈 때 그런 종류의 생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서 말해야 할 것이 많고 아마도 열왕기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Perry Phillips 박사가 다시 설명함